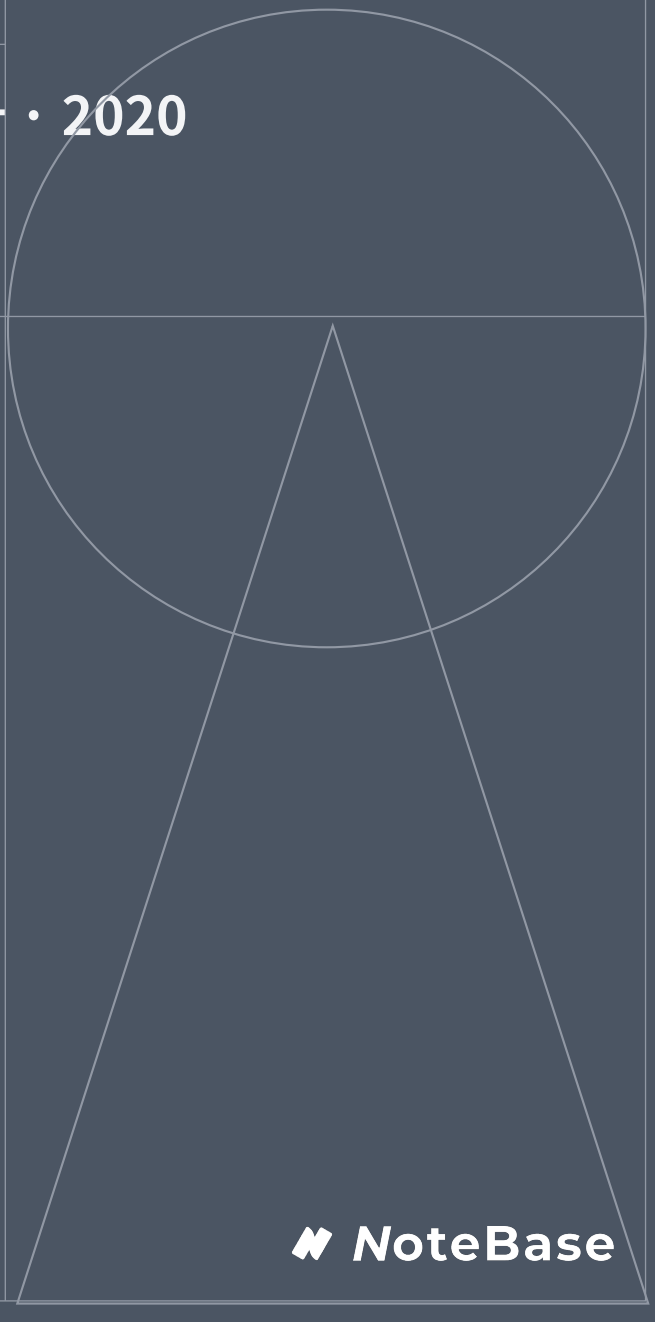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한국사 · 2020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한국사 · 2020

공무원/국가직/7급 · 한국사 · 2020

문 1. 청동기 시대의 사회모습으로 옳은 것은?

① 계급이 발생하고 부족장이 출현하였다.

② 빗살무늬토기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③ 철제 무기로 주변 나라를 정복하였다.

④ 주로 동굴에서 사냥과 채집 생활을 영위하였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청동기 시대의 사회 모습과 구석기·신석기·철기 시대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청동기 시대는 농경이 본격화되고 사유 재산이 늘어나면서 계급이 발생하고 부족장이 등장한 시대이다.
신석기 시대는 빗살무늬토기와 간석기를 사용하며 대체로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한 시대이다.
구석기 시대는 동굴이나 막집에서 이동하며 사냥과 채집을 한 시대이다.
철기 시대는 철제 농기구와 무기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가 성장하고 정복 활동이 활발해진 시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계급의 발생과 부족장의 출현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사회 변화이므로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빗살무늬토기'이다.
빗살무늬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 유물이며, 청동기 시대에는 민무늬토기 등이 사용되었다.
③ X
틀린 부분은 '철제 무기'이다.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주변 세력을 정복한 모습은 철기 시대의 특징이며, 청동기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볼 수 없다.
④ X
틀린 부분은 '주로 동굴에서 사냥과 채집 생활'이다.
동굴이나 막집에서 이동하며 사냥과 채집을 한 것은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이며, 청동기 시대는 정착 생활과 농경이 중심이 되었다.

오답 포인트

선지마다 서로 다른 시대의 대표 키워드를 섞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②의 빗살무늬토기, ③의 철제 무기, ④의 동굴·사냥·채집은 각각 신석기, 철기, 구석기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핵심 명사를 시대별 대표 키워드로 바꾸어 판단하면 된다. 계급·부족장은 청동기, 빗살무늬토기는 신석기, 동굴·사냥·채집은 구석기, 철제 무기와 정복 활동은 철기와 연결된다.

암기 포인트

청동기는 계급과 부족장, 신석기는 빗살무늬토기, 구석기는 동굴과 사냥·채집, 철기는 철제 무기와 정복 활동이다.

NoteBase

문 2. 밑줄 친 왕대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왕이 노비를 조사하여 그 시비를 가려내게 하자, (노비들이) 그 주인을 등지는 자가 많아지고, 윗사람을 능멸하는 풍조가 성행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고 원망하자, 대목왕후가 간곡히 간(諫)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고려사』 -

① 제위보를 설치하였다.
② 귀법사를 창건하였다.
③ 준풍 등 연호를 사용하였다.
④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노비안검법 실시와 독자 연호 사용 등 광종의 업적을 다른 고려 왕의 정책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광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노비안검법을 실시하고 과거제를 도입하였으며, 제위보를 설치하고 광덕·준풍 같은 독자 연호를 사용하였다. 제시문에 보이는 대목왕후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노비안검법을 밀어붙였다는 내용이 광종을 가리키는 단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제위보는 광종 때 설치된 구휼 기관이다. 빈민과 환자를 구제하는 정책으로 광종의 업적으로 볼 수 있다.

② O
귀법사는 광종이 창건한 사찰이다. 불교를 후원하며 왕권을 뒷받침한 광종 시기의 사실과 맞는다.

③ O
광종은 광덕,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는 황제적 권위를 내세우며 자주성을 드러낸 조치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이다.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한 것은 성종의 업적이며, 광종의 업적이 아니다.

오답 포인트

광종과 성종은 모두 고려의 통치 체제를 정비한 왕이라 정책이 자주 섞인다. 특히 광종의 왕권 강화책과 성종의 지방 통치 정비책을 한 묶음으로 외우면 ④ 같은 선지에 흔들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료에서 노비안검법, 대목왕후, 독자 연호가 보이면 먼저 광종을 떠올린다. 이후 선지는 광종의 왕권 강화책인지, 성종의 유교 정치와 지방 제도 정비책인지로 나누어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광종은 노비안검법·제위보·광덕·준풍이고, 성종은 12목 지방관 파견이다.

NoteBase

문 3. 우리나라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태조 왕건은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②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③ 세조는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직전제를 시행하였다.

④ 목종은 인품과 공복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는 시정 전시과를 시행하였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고려·통일 신라·조선의 토지 제도를 해당 왕과 지급 기준에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태조 왕건: 역분전 - 후삼국 통일과 건국 과정의 공로를 반영하여 공신과 호족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신문왕: 관료전 지급, 녹읍 폐지 - 귀족 세력을 약화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세조: 직전제 -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여 과전 제도의 운영을 정비한 제도이다.
경종·목종: 전시과 정비 - 경종은 시정 전시과, 목종은 개정 전시과를 시행하여 고려의 토지 지급 체계를 손질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태조 왕건은 개국 공신과 지방 호족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고려 초 공로 보상 성격의 토지 지급 제도라는 점에서 맞는 설명이다.
② O: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귀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중앙 집권을 강화한 정책이므로 옳다.
③ O: 세조는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직전제를 시행하였다. 과전 제도가 문란해지자 수조권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목종은 … 시정 전시과"와 "공복"이다. 시정 전시과는 목종이 아니라 경종 때 시행되었고, 목종 때는 개정 전시과가 시행되었다. 또한 시정 전시과의 기준은 공복이 아니라 인품과 관품이다. 올바르게는 "경종은 인품과 관품을 기준으로 시정 전시과를 시행하였다" 또는 "목종은 개정 전시과를 시행하였다"이다.

오답 포인트

고려 전시과는 시기별 이름이 비슷하여 경종의 시정 전시과와 목종의 개정 전시과를 뒤섞기 쉽다. ④는 왕명과 제도명을 바꿔 놓고 기준 표현도 흐려서 아는 내용이 어설프면 맞는 문장처럼 보이게 만든 선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왕과 토지 제도는 시대순 연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통일 신라의 신문왕은 관료전, 고려 태조는 역분전, 고려 경종은 시정 전시과, 고려 목종은 개정 전시과, 조선 세조는 직전제로 묶으면 왕명과 제도명이 엇갈린 선지를 바로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태조-역분전, 신문왕-관료전, 경종-시정 전시과, 목종-개정 전시과, 세조-직전제로 연결해 둔다.

NoteBase

문 4. (가) ~ (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고구려 진대법 시행 ~ 백제 불교 공인
(나): 백제 불교 공인 ~ 신라 율령 반포
(다): 신라 율령 반포 ~ 고구려 살수대첩
(라): 고구려 살수대첩 ~ 백제 주류성 함락

① (가) - 신라가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② (나) - 고구려가 한반도에서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③ (다) - 백제가 사비로 천도하였다.
④ (라) - 신라가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웠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대 삼국의 주요 사건을 시간순으로 배열한 뒤, 각 사건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고구려 진대법 시행(194) — 고국천왕 때 실시된 구휼 제도이다.
2. 백제 불교 공인(384) — 침류왕 때 불교를 받아들였다.
3. 신라 율령 반포(520) — 법흥왕 때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다.
4. 고구려 살수대첩(612) — 을지문덕이 수를 격파한 전투이다.
5. 백제 주류성 함락(663) — 백제 부흥 운동이 사실상 끝난 시점이다.

왜 이 순서: 각 선지는 사건이 일어난 연도가 이 경계들 사이에 들어가는지를 비교하면 판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신라의 대가야 병합은 진흥왕 때 562년에 일어났다. (가)는 194년 진대법 시행과 384년 백제 불교 공인 사이의 구간이므로 들어갈 수 없다. 틀린 표현은 '(가)'이다. 올바르게는 '(라) 무렵의 사실'이다.
2번: X. 고구려의 낙랑군 축출은 미천왕 때 313년에 일어났다. (나)는 384년과 520년 사이의 구간이므로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나)'이다. 올바르게는 '(가) 이전 또는 (가) 시기보다 앞선 사실'이다.
3번: O. 백성의 사비 천도는 성왕 때 538년에 일어났다. (다)는 520년 신라 율령 반포와 612년 살수대첩 사이의 구간이므로 시기가 정확히 들어맞는다.
4번: X. 신라가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운 것은 진흥왕 때 568년이다. (라)는 612년 살수대첩 이후부터 663년 주류성 함락 이전의 구간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라)'이다. 올바르게는 '(다) 시기의 사실'이다.

오답 포인트

대가야 병합, 북한산 순수비, 사비 천도는 모두 삼국의 발전 과정에서 자주 함께 묶여 나와 시기 감각이 흐려지기 쉽다. 이 문항은 사건명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사건을 연도로 환산해 구간 안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묻는 함정이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표형 문제는 먼저 기준 사건의 연도를 잡아 구간을 만든 뒤, 각 선지 사건의 연도를 대입해 그 사이에 들어가는지 비교하면 된다. 고대사에서는 313 낙랑 축출, 384 백제 불교 공인, 520 신라 율령, 538 사비 천도, 562 대가야 병합, 568 북한산 순수비, 612 살수대첩처럼 자주 나오는 기준 연도를 묶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313 낙랑 축출 → 384 백제 불교 → 520 신라 율령 → 538 사비 천도 → 562 대가야 병합 → 568 북한산 순수비 → 612 살수대첩 → 663 주류성 함락의 흐름이다.

NoteBase

문 5.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저 적들의 욕심은 물화를 교역하는 데 있습니다. 저들의 물화는 모두 지나치게 사치하고 기이한 노리개이고 손으로 만든 것이어서 그 양이 무궁합니다. ... (중략) ... 저들은 비록 왜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의 서적과 천주의 초상화가 교역하는 속에서 들어올 것입니다.

① 『조선책략』을 입수하여 국내에 소개하였다.

② 임병찬과 함께 독립의군부를 조직하려고 하였다.

③ 서원철폐 조치 등에 반대하면서 흥선대원군을 탄핵하였다.

④ 일제의 침략상을 고발한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였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하며 왜양일체론을 내세운 최익현의 주장을 사료로 식별하고, 그 인물의 행적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최익현: 위정척사 사상을 대표한 유학자로, 개항과 통상을 반대하며 왜양일체론과 5불가소를 주장하였다.
김홍집: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뒤 『조선책략』을 들여와 국내에 소개하였다.
임병찬: 최익현과 함께 의병을 일으킨 인물이지만, 독립의군부는 최익현 사후에 중심이 되어 조직하였다.
박은식: 일제 침략과 민족의 항일 투쟁을 서술한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한 역사학자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잘못된 표현은 '『조선책략』을 입수하여 국내에 소개하였다'이다. 이는 김홍집에 대한 설명이다. 최익현은 『조선책략』 수용이 아니라 개항 반대와 척사 운동을 전개하였다.
2번: X. 잘못된 표현은 '임병찬과 함께 독립의군부를 조직하려고 하였다'이다. 최익현은 임병찬과 함께 을사의병을 일으켰다. 독립의군부는 최익현이 죽은 뒤 임병찬이 중심이 되어 조직하였다.
3번: O. 최익현은 유생의 입장에서 서원 철폐 등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비판하며 상소를 올렸고, 이를 통해 흥선대원군 탄핵 운동을 전개하였다.
4번: X. 잘못된 표현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였다'이다. 이 책은 박은식의 저술이다. 최익현은 위정척사 사상과 의병 활동으로 연결되는 인물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위정척사 계열 인물들은 모두 개항 반대, 항일 의병과 연결되어 비슷하게 보이므로 김홍집, 임병찬, 박은식의 대표 업적이 서로 섞이기 쉽다. 이 문항은 사료의 핵심 표현인 '왜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을 최익현의 왜양일체론으로 바로 잡아내는지가 관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료형 인물 문제는 먼저 사료의 대표 문구를 인물의 별도 키워드로 바꿔 잡는다. 이 문장처럼 개항 반대, 왜양일체론, 5불가소가 보이면 최익현을 떠올리고, 이후 선지는 그 인물의 대표 행적만 남기고 다른 인물의 저술과 단체 활동을 제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최익현 = 왜양일체론·5불가소·개항 반대, 김홍집 = 『조선책략』, 박은식 = 『한국독립운동지혈사』이다.

문 6. 다음 관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앙과 지방의 군국 기무를 모두 관장한다. …(중략)… 도제조(都提調)는 현임과 전임 의정이 겸임한다. 제조는 정수가 없으며, 왕에게 아뢰어 차출하되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의 판서, 훈련도감과 어영청의 대장, 개성·강화의 유수(留守), 대제학이 예겸(例兼)한다. 4명은 유사당상(有司堂上)이라 부르고 부제조가 있으면 예겸하게 한다. 8명은 팔도구관당상(八道句管堂上)을 겸임한다. - 『속대전』 -

① 삼포왜란 중에 상설화되었다.

②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사실상 폐지되었다.

③ 본래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임시기구였다.

④ 임진왜란을 계기로 군사 및 정무 전반을 관할하였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사료의 내용으로 비변사를 식별하고, 설치 배경과 기능 확대 과정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변사는 원래 왜구와 여진 같은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려고 설치된 임시 군사기구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에는 군사 문제를 넘어 정치 전반까지 다루는 최고 권력 기구로 비대화되었다. 흥선대원군은 의정부와 삼군부를 부활시키며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하고 사실상 폐지하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삼포왜란을 계기로 비변사가 설치된 것은 맞지만, 이때 곧바로 상설 기구가 된 것은 아니다. 틀린 부분은 '상설화되었다'이다. 비변사는 을묘왜변을 거치며 상설 기구화되었다.

② O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비변사는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 회복 과정에서 사실상 폐지되었다. 조선 후기 비변사의 권한 집중을 정리한 조치와 연결된다.

③ O
비변사는 본래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임시 기구였다. 왜구와 여진의 침입에 대응하는 군사 회의 기구라는 점이 출발점이다.

④ O
임진왜란 이후 비변사는 군사 문제뿐 아니라 정무 전반까지 관할하는 기구로 확대되었다. 전쟁을 거치며 국정 운영의 중심 기구가 되었다.

오답 포인트

①은 '설치'와 '상설화'를 일부러 섞어 놓은 선지이다. 비변사는 삼포왜란 뒤 설치되었지만, 상설화는 을묘왜변 이후라는 점을 구분하지 못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변사 문제는 '처음에는 외침 대비 임시기구, 임진왜란 뒤에는 최고 권력 기구'라는 흐름으로 판단하면 된다. 선지에 설치 시기와 상설화 시기가 함께 나오면 두 시점을 분리해서 보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비변사: 삼포왜란 설치, 을묘왜변 상설화, 임진왜란 후 권한 확대, 흥선대원군 때 사실상 폐지.

NoteBase

문 7.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신돌석 등 평민 출신 의병장이 활약하였다.

② 군대해산 이후 13도창의군이 결성되어 서울진공작전을 개시하였다.

③ 병자호란 때에 정봉수, 이립 등이 의병을 일으켜 후금군에게 타격을 주었다.

④ 임진왜란 때에 전직 관리와 사림, 승려 등이 이끈 의병은 일본군에게 타격을 주었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임진왜란, 정묘호란, 을사의병, 정미의병 시기의 의병 활동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임진왜란 의병은 전직 관리, 사림, 승려 등이 중심이 되어 일본군에 맞선 의병이다.
정묘호란 의병은 후금의 침입에 맞서 정봉수, 이립 등이 활약한 의병이다.
을사의병은 을사조약 이후 국권 침탈에 맞서 일어났고, 신돌석 같은 평민 출신 의병장이 두드러졌다.
정미의병은 군대 해산 이후 해산 군인이 합류하면서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 작전으로 발전하였다.

선지별 해설

1번: O. 을사조약 체결 뒤 의병이 확대되면서 신돌석 같은 평민 출신 의병장이 활약하였다. 신돌석은 울진·영해 등지에서 활동한 대표적 평민 의병장이다.
2번: O. 군대 해산 이후 해산 군인이 의병에 합류하면서 전력이 강화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어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3번: X. 틀린 부분은 "병자호란 때"이다. 정봉수와 이립 등이 의병을 일으켜 후금군에 맞선 것은 병자호란이 아니라 1627년 정묘호란 때이다.
4번: O. 임진왜란 때의 의병은 전직 관리와 사림이 주도하고 승려도 참여하여 일본군에 타격을 주었다. 승병과 유생 의병의 활약을 함께 묻는 전형적인 선지이다.

오답 포인트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한 묶음으로 외우면 ③처럼 의병 활동 주체와 시기를 뒤섞기 쉽다. 정봉수·이립은 정묘호란, 남한산성 항전과 삼전도의 굴욕은 병자호란으로 끊어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의병 문제는 먼저 전쟁과 조약의 시기를 잡고, 그다음 대표 인물과 전개 양상을 연결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신돌석이면 을사의병, 해산 군인과 13도 창의군이면 정미의병, 정봉수·이립이면 정묘호란 의병으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정봉수·이립은 정묘호란, 신돌석은 을사의병, 13도 창의군은 정미의병이다.

NoteBase

문 8. 통감부 지배 시기에 시행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백동화 및 엽전을 신화폐로 교환하는 화폐정리사업을 개시하였다.

② 내장원이 가졌던 홍삼전매와 역둔토 수입을 국고로 귀속시켰다.

③ 일본 농민의 이주와 토지 수탈을 지원하고자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④ 「토지가옥증명규칙」을 제정하여 매매·저당 등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통감부 지배 시기에 시행된 정책과 그 이전 일본의 고문 정치 단계에서 추진된 정책을 시기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통감부 지배 시기: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내정 간섭을 강화하며 식민지 지배 기반을 마련한 시기이다. 키워드는 동양척식주식회사, 토지가옥증명규칙, 황실 재정 약화이다.
통감부 이전 고문 정치: 통감부 설치 전 일본인 고문을 앞세워 재정과 외교를 장악하던 단계이다. 키워드는 메가타, 화폐정리사업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시기 판단이다. 화폐정리사업은 1905년 메가타의 재정 고문 체제 아래 시작된 것으로 통감부 설치 이전의 정책이다. 올바르게는 '화폐정리사업은 통감부 지배 시기 이전, 일본의 고문 정치 단계에서 추진되었다'이다.
② O: 내장원이 가졌던 홍삼전매와 역둔토 수입을 국고에 귀속시켜 황실 재정을 약화시키고 식민지 지배 기반을 다졌다.
③ O: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08년에 설립되어 일본 농민의 이주와 토지 수탈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기능하였다.
④ O: 「토지가옥증명규칙」은 토지와 가옥의 소유를 증명하게 하여 매매와 저당 등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이후 토지 조사 사업의 기반이 되었다.

오답 포인트

화폐정리사업도 일제의 경제 침탈 정책이므로 통감부 정책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함정은 정책의 내용이 아니라 시작 시점이다. '일제가 추진한 정책'과 '통감부 시기에 시행된 정책'을 구분하지 않으면 ①에 걸리게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일제 침탈 정책을 묻는 문제는 정책 내용만 보지 않고 시행 시기와 주체를 함께 묶어 판단하면 된다. 메가타와 화폐정리사업은 통감부 이전의 고문 정치로, 동양척식주식회사와 토지가옥증명규칙은 통감부기의 식민지 기반 조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화폐정리사업은 통감부 이전, 동양척식주식회사와 토지가옥증명규칙은 통감부기 정책이다.

NoteBase

문 9. 밑줄 친 '선생'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그 길로 함께 안중근의 집에 가서 선서식을 하고 폭탄 두 개와 300원을 주면서 "선생은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 이 돈을 아끼지 말고 동경(東京) 가시기까지 다 쓰시오. 동경에 도착하여 전보를 치면 다시 돈을 보내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관으로 갔는데, 사진을 찍을 때 내 얼굴에 자연 슬픈 기색이 있었던지 그가 나를 위로하면서 "저는 영원한 쾌락을 누리고자 이 길을 떠나는 것이니 서로 기쁜 얼굴로 사진을 찍으십시다."라고 하였다. 나 역시 미소를 띠고 사진을 찍었다.

①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졌다.
② 만주에서 의열단을 결성하였다.
③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④ 상하이에서 한인애국단에 참가하였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시문의 인물인 이봉창과 그의 대표 활동인 한인애국단 가입 및 도쿄 의거 준비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이봉창: 한인애국단 - 김구의 지도 아래 상하이에서 한인애국단에 가입하고 도쿄에서 일왕 폭살을 시도한 인물이다.
윤봉길: 홍커우 공원 의거 - 1932년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한 인물이다.
김원봉: 의열단 - 1919년 만주 길림에서 의열단을 조직한 인물이다.
안중근: 하얼빈 의거 -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인물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졌다'이다. 이는 윤봉길의 활동이다. 올바르게는 윤봉길이 1932년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하였다.
② X: 틀린 표현은 '만주에서 의열단을 결성하였다'이다. 이는 김원봉의 활동이다. 올바르게는 김원봉이 1919년 만주 길림에서 의열단을 조직하였다.
③ X: 틀린 표현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이다. 이는 안중근의 활동이다. 올바르게는 안중근이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④ O: 제시문의 안공근 집 선서식, 폭탄 두 개 지급, 도쿄로 떠나기 전 기념사진은 이봉창 의거 준비 장면과 연결된다. 이봉창은 상하이에서 한인애국단에 참가한 뒤 도쿄에서 일왕 폭살을 시도하였다.

오답 포인트

상하이, 폭탄, 의거라는 단어만 보고 윤봉길을 떠올리기 쉽지만 제시문의 핵심은 '동경으로 가는 길', '안공근 집 선서식', '기념사진'이다. 이는 홍커우 공원 의거가 아니라 이봉창의 도쿄 의거 준비 과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독립운동가 문제는 사건 장소와 대표 의거를 먼저 연결하면 풀린다. 도쿄 의거 준비와 한인애국단은 이봉창, 홍커우 공원은 윤봉길, 하얼빈은 안중근, 의열단 조직은 김원봉으로 구분된다.

암기 포인트

이봉창=한인애국단=도쿄 의거, 윤봉길=홍커우 공원, 안중근=하얼빈, 김원봉=의열단이다.

NoteBase

문 10. 자료에 나타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래의 양전처럼 농지의 비척(肥瘠)이나 가옥의 규모를 조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전국 토지 일체에 대한 조사를 목표로 지질과 산림 · 천택, 수풀과 해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하였다. 나아가 전국 토지의 정확한 규모와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소유권을 확인해 주기 위해 지계(地契)를 발행하는 사업을 함께 전개하였다.

① 양지아문에서 양전 사업을 착수하였다.
② 조사한 토지의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작성하였다.
③ 지계아문에서 지계 발급 사무를 맡았다.
④ 러 · 일전쟁 발발 직후 일본의 간섭으로 중단되었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제시문에 나타난 정책이 대한제국의 광무양전 사업과 지계 발급 사업임을 파악하고, 이를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제시문에서 '전국 토지 일체 조사', '소유권 확인', '지계 발행'이라는 핵심 표현을 잡는다.
2. 이 내용이 대한제국의 양전 사업과 지계 발급 사업이라는 점을 연결한다.
3. 각 선지가 대한제국기 토지 조사인지, 일제 강점기 토지 조사 사업의 내용인지 구분해 판단한다.

선지별 해설

1번 O: 양지아문은 갑오개혁 때 설치되어 양전 사업을 담당하였다. 대한제국은 이를 바탕으로 광무양전을 추진하였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2번 X: 틀린 표현은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작성하였다'이다. 제시문의 사업은 토지 소유권을 확인하고 지계를 발급한 대한제국의 토지 조사이다. 지적도와 토지대장 정비는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과 연결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3번 O: 지계아문은 토지 소유권 증명 문서인 지계를 발급하는 사무를 맡았다. 제시문의 '지계를 발행하는 사업'과 그대로 연결되므로 맞다.
4번 O: 광무양전 사업은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간섭이 심해지면서 중단되었다. 대한제국이 전국적 토지 조사를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선지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토지 조사라는 공통점만 보고 대한제국의 광무양전 사업과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을 섞으면 2번에 끌리기 쉽다. 특히 '지적도', '토지대장'처럼 근대적 토지 행정 용어가 나오면 시기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료에 지계 발급, 소유권 확인, 광무개혁이 연결되면 대한제국의 양전 사업으로 본다. 반대로 지적도, 토지대장, 식민지 지배 체제 정비가 핵심이면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을 먼저 떠올리면 된다.

암기 포인트

광무양전은 대한제국의 토지 조사와 지계 발급이고, 지적도·토지대장은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11. (가)를 편찬한 왕대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S# 15. 어전회의
국왕: 짐이 오랫동안 농사에 관심을 두고 있어 옛글의 농사짓는 방법에도 관심이 있었소. 그런데, 옛글에 있는 방법으로 농사를 지으니 지방에 따라 농사가 잘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소. 짐의 생각으로는 지방마다 풍토가 달라 곡식을 심고 가꾸는 데 각기 맞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를 알아낼 방도를 말해 보시오.
신하 1: 여러 도의 감사에게 명하여 고을의 나이 많은 농부에게 물어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것을 아뢰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국왕: 아주 좋은 생각이오. 그렇게 수집된 것 중 중요한 것을 추려서 편찬하고 책의 제목을 (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소?
신하 2: 어명을 받들어 책을 편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왕: 편찬된 책은 각도의 감사와 2품 이상에게 나누어 주어 백성에 도움이 되게 하라.

① 대보단을 설치하였다.
② 구리로 만든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③ 여민락 등을 짓고 정간보를 창안하였다.
④ 기유약조를 맺고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였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세종 때 편찬된 『농사직설』을 단서로 왕대를 파악하고, 같은 시기의 문화 업적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농사직설』은 세종 때 각 지방의 실제 농사 경험을 조사해 편찬한 농서이다.
세종 대에는 농업 진흥뿐 아니라 여민락 제작, 정간보 창안 같은 문화 사업도 함께 이루어졌다.
선지는 업적 자체보다 어느 왕대의 일인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대보단을 설치하였다'이다. 대보단은 청에 대한 북벌 의식과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운 숙종 때 설치되었으므로 세종 대의 사실이 아니다.
② X: 틀린 표현은 '구리로 만든 계미자를 주조하였다'이다. 계미자는 태종 때 만든 금속 활자이므로 세종 대 업적으로 볼 수 없다.
③ O: 여민락은 세종 때 만든 궁중 음악이며, 이를 기록하기 위한 정간보도 세종 때 창안되었다. 『농사직설』 편찬과 같은 세종 대의 문화 정책에 해당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기유약조를 맺고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였다'이다. 기유약조는 광해군 때 왜관 무역을 재정비한 약조이므로 세종 대의 사실이 아니다.

오답 포인트

조선 전기의 업적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②와 ③을 함께 세종 시기로 묶기 쉽다. 그러나 계미자는 태종, 여민락과 정간보는 세종이라는 왕대 구분이 선명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료에서 『농사직설』이 보이면 먼저 세종을 떠올린다. 그다음 선지는 업적의 분야보다 왕대를 기준으로 대조하면 정답을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세종 = 『농사직설』, 여민락, 정간보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정책을 시행한 시기를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경기도에 처음으로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나) 종래 상민에게만 거두었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하였다.
(다)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전세를 고정시키는 영정법을 시행하였다.
(라) 신해통공으로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① (가) → (다) → (라) → (나)
② (가) → (라) → (나) → (다)
③ (다) → (가) → (라) → (나)
④ (다) → (라) → (나) → (가)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조선 후기의 수취 제도와 상업 정책을 시행한 시기를 연결해 시대순으로 배열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가) 광해군 때 경기도에 처음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2. (다) 인조 때 풍흉과 관계없이 전세를 일정하게 거두는 영정법을 시행하였다.
3. (라) 정조 때 신해통공으로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4. (나) 흥선대원군 때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담시키는 호포제를 실시하였다.

왜 이 순서: 대동법과 영정법은 조세 제도의 정비 흐름이고, 신해통공은 그보다 뒤인 정조 시기의 상업 정책이며, 호포제는 가장 늦은 흥선대원군 집권기의 개혁이기 때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가) 대동법 시행은 광해군, (다) 영정법은 인조, (라) 신해통공은 정조, (나) 호포제는 흥선대원군 시기이므로 배열이 맞다.
2번 X: (라) 신해통공은 정조 때이고 (나) 호포제는 흥선대원군 때이므로 (라)가 (나)보다 먼저이다. 틀린 표현은 '(나)→(다)' 사이의 배치이다. 올바르게는 (가)→(다)→(라)→(나)이다.
3번 X: (다) 영정법을 (가) 대동법보다 앞세운 점이 틀리다. 대동법이 먼저 시행되고 그 뒤에 영정법이 시행되었다. 올바르게는 (가)→(다)→(라)→(나)이다.
4번 X: (다) 영정법을 맨 앞에 두고 (가) 대동법을 맨 뒤에 둔 점이 모두 틀리다. 가장 이른 것은 (가)이고 가장 늦은 것은 (나)이다. 올바르게는 (가)→(다)→(라)→(나)이다.

오답 포인트

대동법과 영정법은 모두 조세 제도라서 순서를 뒤섞기 쉽고, 신해통공과 호포제는 모두 조선 후기 개혁이라 정조와 흥선대원군의 시기를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선 후기 정책 배열 문제는 가장 이른 광해군의 대동법과 가장 늦은 흥선대원군의 호포제를 먼저 고정하면 된다. 그 사이에 인조의 영정법과 정조의 신해통공을 넣으면 순서가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광해군 대동법 → 인조 영정법 → 정조 신해통공 → 흥선대원군 호포제의 흐름으로 묶인다.

NoteBase

문 13.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주민 수만 명이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손에는 나무 몽둥이를 들고 무리를 지어 진주 읍내에 모여 서리들의 가옥 수십 호를 불사르고 부수어서, 그 움직임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 우병사가 해산시키려고 장시에 나갔다. 그때 흰 수건을 두른 백성들이 그를 빙 둘러싸고 백성의 재물을 횡령한 조목, 그리고 아전들이 세금을 포탈하고 강제로 징수한 일들을 여러 번 문책하였다. 그 능멸하고 핍박함이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

① 신유박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② 이필제가 난을 주도하였다.
③ 전봉준 등이 사발통문을 보내 봉기를 호소하였다.
④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진주 민란의 핵심 단서를 파악하고 그 결과와 관련 정책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례 정리

핵심 사실 1: 진주민 수만 명이 흰 수건을 두르고 진주 읍내에 모여 관아와 부호의 가옥을 불태웠다.
핵심 사실 2: 백성의 재물을 횡령한 조목과 세금을 포탈하고 강제로 징수한 아전을 문책하였다.
판단에 중요한 조건: 삼정의 문란과 탐관오리의 수탈에 맞선 1862년 진주 민란의 상황이다.

핵심 개념

진주 민란은 1862년에 삼정의 문란과 지방관의 수탈에 항거하여 일어난 대표적 농민 봉기이다.
이 사건은 임술 농민 봉기의 출발점이 되어 전국적 농민 항쟁으로 확산되었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흰 수건, 진주 읍내 집결, 탐관오리 문책, 삼정 문란이라는 단서를 묶어 진주 민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후의 제도 개편이나 다른 농민 운동과 혼동하지 않는지가 핵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신유박해는 1801년에 일어난 천주교 박해이다. 이 사건은 1862년 진주 민란이므로 연결될 수 없다. 틀린 표현은 '신유박해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고, 올바르게는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논의가 커진 계기'이다.
2번: X. 진주 민란은 유계춘 등이 주도하였다. 이필제는 이후 다른 농민 봉기와 관련된 인물이다. 틀린 표현은 '이필제가 난을 주도하였다'이고, 올바르게는 '유계춘 등이 진주 민란을 주도하였다'이다.
3번: X. 전봉준과 사발통문은 1894년 동학 농민 운동의 내용이다. 이 사건과 시기와 성격이 다르다. 틀린 표현은 '전봉준 등이 사발통문을 보내 봉기를 호소하였다'이고, 올바르게는 '전봉준의 사발통문은 동학 농민 운동 때의 일이다'이다.
4번: O. 진주 민란을 계기로 임술 농민 봉기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정부는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오답 포인트

농민 봉기 문제에서 진주 민란, 동학 농민 운동, 이필제의 난을 시기별로 섞으면 틀리기 쉽다. 특히 3번의 전봉준, 사발통문은 농민 항쟁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자주 혼동되는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농민 봉기 사료는 지역, 시기, 핵심 인물, 직접 원인을 먼저 잡으면 된다. 진주와 삼정 문란이 보이면 1862년 진주 민란을 먼저 떠올리고, 결과로 삼정이정청 설치를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진주 민란은 1862년 삼정 문란에 대한 항거이고, 결과는 임술 농민 봉기 확산과 삼정이정청 설치이다.

NoteBase

문 14. (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가) 윤관이 여진을 공격하여 동북지방의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9성을 쌓아 군사를 주둔시켰다.
(나) 최충헌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교정도감을 설치하였다.

ㄱ. 강화로 천도하였다.
ㄴ. 이자겸의 난이 발생하였다.
ㄷ. 묘청 등이 서경 천도 운동을 일으켰다.
ㄹ. 강감찬이 퇴각하는 거란군을 귀주에서 격파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려 전기의 주요 사건들을 연표에 놓고 (가) 윤관의 여진 정벌과 (나) 최충헌 집권 사이에 들어가는 사건을 가려내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귀주 대첩(1019) - 강감찬이 거란군을 격파한 사건이다.
2. 윤관의 여진 정벌과 동북 9성 축조(1107~1109) - 여진을 공격하고 동북 9성을 쌓은 사건이다.
3. 이자겸의 난(1126) -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를 보여 준 사건이다.
4.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1135) - 서경 천도와 칭제 건원을 주장한 사건이다.
5. 최충헌 집권과 교정도감 설치(1196) - 무신 정권이 최충헌 중심으로 재편된 시점이다.
6. 강화 천도(1232) - 몽골 침입에 맞서 수도를 강화로 옮긴 사건이다.

왜 이 순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은 윤관의 여진 정벌 뒤이면서 최충헌 집권 이전이다. 반면 귀주 대첩은 (가) 이전이고 강화 천도는 (나) 이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1번은 ㄱ, ㄴ의 조합이다. ㄴ의 이자겸의 난은 1126년으로 (가)와 (나) 사이 사건이지만, ㄱ의 강화 천도는 1232년으로 최충헌 집권 이후의 일이다. 틀린 표현은 ㄱ을 사이 사건으로 본 점이고, 올바르게는 '강화 천도는 (나) 이후의 사건이다'이다.

② X
2번은 ㄱ, ㄹ의 조합이다. ㄱ의 강화 천도는 1232년으로 너무 늦고, ㄹ의 귀주 대첩은 1019년으로 윤관의 여진 정벌보다 앞선다. 틀린 표현은 ㄱ과 ㄹ을 모두 사이 사건으로 본 점이고, 올바르게는 'ㄱ은 (나) 이후, ㄹ은 (가) 이전의 사건이다'이다.

③ O
3번은 ㄴ, ㄷ의 조합이다. ㄴ의 이자겸의 난은 1126년, ㄷ의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은 1135년이므로 둘 다 윤관의 여진 정벌 이후이면서 최충헌 집권 이전에 해당한다.

④ X
4번은 ㄷ, ㄹ의 조합이다. ㄷ의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은 사이 사건으로 맞지만, ㄹ의 귀주 대첩은 1019년으로 (가)보다 앞선다. 틀린 표현은 ㄹ을 사이 사건으로 본 점이고, 올바르게는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ㄴ, ㄷ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강화 천도를 고려 전기 개혁 정치와 같은 흐름으로 묶거나, 귀주 대첩과 윤관의 여진 정벌을 모두 대외 항쟁 사건으로만 기억하면 시기를 뒤섞기 쉽다. 이 문제는 사건의 성격보다 연도를 기준으로 앞뒤를 가르는 것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표 문제는 기준 사건 두 개의 연도를 먼저 잡고, 각 선지를 그 앞·사이·뒤로 나누어 판단한다. 이 문항에서는 1107년 무렵의 윤관과 1196년 최충헌을 축으로 두면 1126년 이자겸의 난과 1135년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만 남는다.

암기 포인트

귀주 대첩 → 윤관 9성 → 이자겸의 난 →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 최충헌 집권 → 강화 천도 순서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15.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침 8시, (가)은/는 조선총독부 엔도 정무총감을 만나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국에 구속되어 있는 정치 · 경제범을 즉시 석방하라.
둘째, 3개월간의 식량을 확보하여 달라.
셋째, 치안 유지와 건설 사업에 아무 간섭하지 말라.
넷째, 학생 훈련과 청년 조직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
다섯째, 전국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를 우리들의 건설 사업에 협력시키며 아무 괴로움을 주지 말라.
- 『매일신보』 -

① 건국동맹을 결성하여 일제의 패망과 광복에 대비하였다.
② 김규식과 함께 좌 · 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③ 민족역량의 총집결을 강령으로 하는 조선인민당을 결성하였다.
④ 평양에서 개최된 전조선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에 참석하였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광복 직후 정국에서 여운형의 활동과 다른 인물들의 활동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여운형: 건국동맹,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선인민당으로 이어지는 흐름의 중심 인물이다.
김규식: 여운형과 함께 좌우 합작을 추진하며 좌우합작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인물이다.
김구·김규식: 1948년 평양의 남북협상, 전조선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와 연결되는 인물들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여운형은 1944년 건국동맹을 결성하여 일제 패망 이후의 독립과 건국에 대비하였다. 건국동맹은 광복 직후 건국 준비 세력의 기반이 되었다.
2번 O: 여운형은 김규식과 함께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여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였다. 광복 이후 좌우 대립을 완화하려는 대표적 활동이다.
3번 O: 여운형은 민족 세력의 총결집을 내세운 조선인민당 결성에 참여하였다. 건국 준비와 통일 국가 수립을 위한 정치 세력화와 연결된다.
4번 X: 틀린 부분은 여운형을 1948년 평양의 전조선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참석 인물로 연결한 점이다. 실제로 이 연석회의에는 김구와 김규식 등이 참석하였고, 여운형은 1947년에 암살되어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

오답 포인트

여운형의 좌우 합작 활동과 1948년 남북협상 관련 인물을 함께 외우지 않으면 헷갈리기 쉽다. 특히 김규식은 여운형과도 연결되고 평양 연석회의와도 연결되므로, 여운형까지 연석회의 참석자로 잘못 묶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광복 직후 인물 문제는 건국 준비, 좌우 합작, 남북협상으로 시기를 나누어 판단한다. 여운형은 건국동맹·건국준비위원회·조선인민당·좌우합작까지이고, 1948년 평양 연석회의는 김구·김규식과 연결하면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여운형은 건준과 좌우합작, 김구·김규식은 1948년 평양 연석회의이다.

NoteBase

문 16. 밑줄 친 '철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종점이 되는 초량 등은 혹시 그럴 수도 있으므로 괴이할 것이 없으나 중간 장시나 향촌의 참(站)에는 화물이 풍부하지 않고 탑승객이 많지 않은데 어찌 그 부지로 20만 평이나 쓰는가. 이는 일본인의 식민 계략이니, …(중략)… 또한 본 철도 선로가 완성되면 물산 제조와 정치상 사업이 진보하여 얼마간 확장되는 면이 있겠으나 일본의 식민 욕심은 이 때문에 더욱 절실해질 것이다. -『황성신문』, 1901년 10월 7일-

① 군용철도 명목으로 개통되었다.

② 부설을 위하여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되었다.

③ 부설 과정에서 한국인의 토지와 가옥이 강압적으로 수용되었다.

④ 일본은 부설에 따른 각종 이권을 획득하고자 군사적 위협을 가하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시문의 철도가 경부선임을 파악하고, 경부선 부설의 성격과 관련 기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제시문의 철도는 1901년 초량에서 기공된 경부선이다. 경부선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철도로 일본의 침략과 수탈을 위한 간선이었다. 한성전기회사는 경부선 부설 회사가 아니라 서울 시내의 전차·전등·전화 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경부선은 서울과 부산을 잇기 위해 일본 자본의 경부철도주식회사가 부설한 철도이지만, 러일 전쟁(1904~1905)이 일어나자 일본은 병력과 군수 물자를 실어 나르는 병참선으로 활용하기 위해 속성 공사를 벌여 개통을 앞당겼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군사적 필요를 명분으로 철도 부지와 정거장 용지를 대규모로 강제 수용하였고, 전시에는 경부선을 사실상 일본군의 통제 아래 두어 군용 철도처럼 운용하였다. 이처럼 군사적 명분과 목적 아래 부지 수용과 개통이 강행되었으므로, 군용철도 명목으로 개통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참고로 정식 명칭이 군용철도였고 일본군의 임시군용철도감부가 직접 부설한 대표 사례는 경의선과 경원선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한성전기회사"이다. 한성전기회사는 서울의 전차·전등·전화 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실제로 경부선 부설을 위해 설립된 것은 일본 자본의 경부철도주식회사이다.

③ O
경부선 부설 과정에서는 한국인의 토지와 가옥이 헐값에 수용되거나 강제로 빼앗겼다. 철도 부지와 정거장 부지를 과도하게 확보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생활 기반을 잃었다.

④ O
일본은 경부철도 부설권을 얻는 과정에서 강압적 외교 교섭을 벌였고, 청일 전쟁 이후의 군사력 우위를 배경으로 철도 부설권과 각종 특권을 확보하였다. 경부선은 단순한 교통 시설이 아니라 침략 이권 확보의 수단이었다.

오답 포인트

철도 관련 회사 이름을 서로 섞으면 틀리기 쉽다. 한성전기회사는 이름에 전기가 들어가므로 전차와 연결해야 하는데, 이를 경부선 부설 회사로 바꾸어 놓은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에 초량, 1901년, 식민 계략 비판이 보이면 경부선을 먼저 떠올린다. 이후 회사명이 나오면 철도 부설 회사인지, 도시 전차·전등 사업 회사인지 기능부터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경부선은 침략 철도, 한성전기회사는 서울 전차·전등 회사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가상의 기사에서 (가)에 해당하는 관등은?

제○○○○○호 ○○판 **□□신문** ○○○○년 ○월 ○○일

백제 문화 재현 행사에 관복 복색 논란



□□시(군)에서는 백제 문화 재현 행사를 준비 중이다. 행사를 위해 백제 고이왕 재위 27년에 제정한 관등제와 관복 관련 기록을 기초로 하여 백제 관리가 관복을 입은 모습을 그린 추정도가 사전에 공개되었다. 그림의 왼쪽부터 1품 좌평(佐平)은 황색(黃色), 2품 달솔(達率)은 자색(紫色), 7품 장덕(將德)은 비색(緋色), 12품 문독(文督)은 청색(靑色)의 관복을 입은 것으로 묘사했다. 하지만 전문가인 엄○○ 교수는 해당 자료를 보고 이 중 (가)의 복색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백제 관리의 복색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① 좌평

② 달솔

③ 장덕

④ 문독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백제 고이왕대 관등제와 『삼국사기』의 품계별 복색 기록을 기사 속 재현도와 대조하여 어느 관등의 색이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좌평은 1품이며 『삼국사기』에는 6품 이상이 자색 관복을 입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기사처럼 황색으로 재현한 부분이 틀렸으므로 (가)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좌평은 황색'이고, 올바르게는 '좌평은 자색'이다.
② X : 달솔은 2품이므로 6품 이상에 포함되어 자색 관복을 입는다. 기사의 달솔 자색 재현은 기록과 맞으므로 (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X : 장덕은 7품이므로 비색 관복에 해당한다. 기사의 장덕 비색 재현은 기록과 맞으므로 틀린 복색이 아니다.
④ X : 문독은 12품이므로 청색 관복에 해당한다. 기사의 문독 청색 재현은 기록과 맞으므로 (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좌평과 달솔이 모두 상위 관등이라 함께 자색 계열로 묶인다는 점을 놓치면 ②를 고르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개별 관등 이름보다 '1~6품 자색, 7~11품 비색, 12~16품 청색'이라는 품계별 색 구분을 기억하는지에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백제 관복 문제는 먼저 관등의 품계를 확인한 뒤 품계 구간별 복색을 대입하여 판단하면 된다. 상위인 좌평과 달솔은 모두 자색, 중간인 장덕은 비색, 하위인 문독은 청색으로 정리하면 선지를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백제 복색은 1~6품 자색, 7~11품 비색, 12~16품 청색으로 구분되며 좌평은 황색이 아니라 자색이다.

NoteBase

문 18. (가) 왕대에 볼 수 없었던 조형물은?

대리석으로 만든 10층 석탑으로 원래는 경천사에 세워졌다. 이후 원위치에서 불법 반출되어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반환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이 석탑은 표면에 새겨진 명문에 의하여 (가) 왕대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① 불국사 다보탑
② 원각사 10층 석탑
③ 법천사 지광국사탑
④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경천사 10층 석탑의 건립 시기인 고려 충목왕 대를 기준으로, 각 조형물이 그 이전에 이미 존재했는지 아니면 훗날 조성되었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천사 10층 석탑은 명문을 통해 고려 충목왕 4년(1348)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이 문항은 충목왕 대보다 앞선 통일 신라·고려 전기의 문화재는 볼 수 있었고, 조선 시대에 새로 만들어진 문화재는 볼 수 없었다는 시간축으로 판단하면 된다.

선지별 해설

1번: X. 불국사 다보탑은 통일 신라 시대의 석탑이므로 충목왕 대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이 선택지를 고치면 '충목왕대에 이미 볼 수 있었던 조형물'이 된다.
2번: O. 원각사 10층 석탑은 조선 세조 13년(1467)에 조성된 석탑이므로 고려 충목왕 대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충목왕 대에 볼 수 없었던 조형물에 해당한다.
3번: X. 법천사 지광국사탑은 고려 전기의 승탑으로 지광국사 해린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충목왕 대 이전의 고려 문화재이므로 이미 볼 수 있었다. 이 선택지를 고치면 '충목왕대에 볼 수 있었던 조형물'이 된다.
4번: X.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고려 광종 때 조성된 대표적 불상으로 충목왕 대보다 앞선 시기의 작품이다. 따라서 충목왕 대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 선택지를 고치면 '충목왕대에 볼 수 있었던 조형물'이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경천사 10층 석탑과 원각사 10층 석탑은 모두 대리석 재질의 10층 석탑이라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전자는 고려 충목왕 대이고 후자는 조선 세조 대라는 시대 차이가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준 유물의 왕대부터 잡고, 각 선지를 그보다 이전 작품인지 이후 작품인지 시간축에 놓으면 정답을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경천사 10층 석탑은 고려 충목왕, 원각사 10층 석탑은 조선 세조로 연결된다.

NoteBase

문 19. 밑줄 친 '그해'에 발생한 사건으로 옳은 것은?

그해에는 이미 나의 앞에는 한 발자국 내어 디딜 땅조차 없었다. 그 때문에 사회로 나선 나의 첫 발길은 오대산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었다. … (중략) … 전해에는 『동아』, 『조선』 두 신문의 폐간을 보았고, 그해에는 다시 『문장』 폐간호를 절간에서 받아 보게 되었다.

— 조지훈, 「화동 시절의 추억」 —

① 조선에 「치안유지법」이 시행되었다.
② 한국독립당이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③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조선의용대를 조직하였다.
④ 총독부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설치하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사료의 '전해에는 동아·조선의 폐간을 보았고, 그해에는 문장 폐간호를 받았다'는 단서를 통해 1941년을 특정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사료의 시간 표현인 '전해'와 '그해'를 구분한다.
2.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폐간이 1940년이라는 점을 잡는다.
3. 따라서 '그해'는 1941년이므로, 1941년에 있었던 사건을 선지와 대조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치안유지법은 1925년 제정되어 조선의 독립운동과 사회운동을 탄압하는 데 활용되었다. 1941년에 새로 시행된 사건이 아니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은 '그해'이며, 올바르게는 치안유지법 관련 사건은 1920년대의 일이다.

② O
한국독립당은 1941년에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사료에서 전해를 1940년, 그해를 1941년으로 잡으면 해당 연도와 맞는 사건은 이것이다.

③ X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조선의용대를 조직한 것은 1938년이다. 선지의 사건 자체는 맞지만 사료의 '그해'인 1941년과는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그해'이며, 올바르게는 1938년에 있었던 일이다.

④ X
총독부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설치한 것은 1938년이다. 중일 전쟁 이후 전시 동원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직이므로 1941년 사건으로 볼 수 없다. 틀린 표현은 '그해'이며, 올바르게는 1938년에 설치되었다.

오답 포인트

사료형 문제에서 사건의 내용만 보고 익숙한 것을 고르면 ③이나 ④처럼 실제 역사적 사실이지만 연도가 다른 선지에 끌리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선지의 진위가 아니라 사료가 가리키는 정확한 연도에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료에 '전해', '그해', '이듬해' 같은 상대 시점이 나오면 먼저 기준 사건의 절대 연도를 잡고, 그다음 한 해씩 이동해 선지를 대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동아·조선 폐간 1940년, 대한민국 건국강령 발표 1941년으로 이어서 기억하면 된다.

NoteBase

문 20. (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UN 한국위원단이 총선거 감시와 협의를 할 수 있었던 그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통제 및 사법권을 보유한 합법정부가 수립되었으며, ... (중략) ... 한국위원단은 지난번 한국 인민의 자유로 표현된 의사에 기초하여 장차의 대의정부 발전에 유용한 감시와 협의를 수행할 것이다.
(나) 안전보장이사회는 ... (중략) ...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평화 파괴를 조성한다고 단정하였다. 이 지역에서 그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하도록 국제연합 제 회원국에게 권고하였다.

① 제헌헌법이 공포되었다.
②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구성되었다.
③ 귀속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되었다.
④ 일본인 토지의 분배를 위해 중앙토지행정처가 발족되었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UN 총회가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 감시가 가능했던 지역의 합법 정부로 인정한 결의 제195호(1948년 12월)의 시점과, 6·25 전쟁 직후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1950년 6월) 사이의 사건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가) 사료의 'UN 한국위원단이 총선거 감시와 협의를 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 합법정부가 수립되었다'는 문구가 곧 UN 총회 결의 제195호이다.

올바른 순서

1. 1948년 5·10 총선거 실시와 제헌 국회 구성
2.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3. 1948년 12월 UN 총회가 대한민국 정부를 합법 정부로 인정한 결의(제195호) 채택 = (가)
4. 1949년 귀속재산처리법 제정
5. 1950년 6월 북한의 남침과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원조 권고 = (나)

왜 이 순서인가: (가) 사료의 '총선거 감시와 협의를 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 합법정부가 수립되었다'는 문구는 1948년 12월 UN 총회 결의 제195호를 가리키고, (나) 사료는 1950년 6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가리킨다. 귀속재산처리법은 정부 수립 뒤 미군정이 넘긴 적산 처리를 제도화한 조치이고, 6·25 전쟁 발발보다 앞선 1949년의 일이므로 (가)와 (나) 사이에 위치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제헌헌법 공포는 1948년 7월 17일로, (가)의 UN 총회 결의(1948년 12월)보다 앞선다. 따라서 제헌헌법 공포는 (가) 이전의 사건이며,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 아니다.
② X: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미군정기인 1946년에 구성되었다. 이는 (가) 이전의 사건이므로 (가)와 (나) 사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O: 귀속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재산처리법」은 1949년에 제정되어 1948년 12월의 (가)와 1950년 6월의 (나) 사이에 해당한다.
④ X: 일본인 소유 토지 등 귀속농지 분배를 위한 중앙토지행정처는 1948년 3월 미군정기에 신한공사를 개편해 발족하였다. 이는 (가)의 UN 총회 결의(1948년 12월)보다 앞선 사건이므로 (가)와 (나) 사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UN 관련 사료가 나오면 막연히 해방 직후 전체를 한 덩어리로 외우기 쉽다. 이 문항은 1948년 12월과 1950년 6월 사이의 짧은 구간을 정확히 끊어야 하므로, 제헌헌법 공포·남조선과도입법의원·중앙토지행정처처럼 미군정기 또는 정부 수립 직전 사건을 끼워 넣으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대사 연표 문제는 사료의 핵심 문구로 사건 시점을 먼저 특정한 뒤, 보기 사건을 정부 수립 이전, 정부 수립 직후, 6·25 전쟁 전후로 구간화해 대입하면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UN 총회 승인 1948년 12월(결의 제195호) → 귀속재산처리법 1949년 → 6·25 전쟁 1950년 6월의 흐름으로 정리된다.

NoteBase